

생물인류학적 관점에서의 동물고고학 특집호에 대하여

김명주¹, 홍종하², 송우철³, 신동훈⁴

¹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²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³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해부학교실, 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Preface of the Special Issues on Zooarchaeology from the Perspective of Biological Anthropology

Myeungju Kim¹, Jong Ha Hong², Wu-Chul Song³, Dong Hoon Shin⁴

¹Department of Anatomy,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heonan Choongnam, Korea

²Institute of Korean Archaeology and Ancient History, Kyung Hee University

³Department of Anatomy, Konku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⁴Department of Anatomy and Cell B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인류 역사를 논할 때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온 동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오래전 인간과 늑대 사이에 형성된 동료애는 그 후손인 개로 이어져 인류의 중요한 ‘반려동물’이 되었고, 수천 년 동안 묵묵히 인간 곁에서 촌락과 촌락 사이를 이어주는 운반 수단이었던 당나귀는 그 자체 ‘훌륭한 일꾼’이었다. 말은 전장에서 기마병들과 생사를 같이하며 동고동락했으며 소는 농경사회에 필수적인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돼지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단백질원이 되었다. 인간과 동물은 이렇듯 서로의 삶을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역사적으로 공존하였던 것이다. 동물고고학은 고고학 유적에서 출토된 다양한 동물 종의 뼈, 이빨, 뿔, 상아, 가죽, 털과 같은 옛 동물 유체와 비늘, 조가비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분석하여 해당 동물 개체의 성별, 연령 등 기초적 정보와 함께 종 동정, 가축화 과정 연구, 식용 여부 등 다양한 학술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해부생물인류학지는 금번 특집호에서 동물고고학에 관련된 논문 6편을 함께 묶어 소개하고자 한다. 수록된 논문들 중에는 삼국시대 및 조선시대 유적에서 발굴된 동물 뼈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시베리아, 인도, 그리고 미얀마 유적에서 수행된 동물고고학 연구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가장 먼저 『포유동물유체로 본 영남지방 중심지의 동물이용의 현황과 양상』에서는 우리나라 패총과 저습지에서 출토되는 동물유존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삼국시대에 발굴된 동물 뼈에 대한 또 다른 논문인 『한국 고대 동물희생의례의 특징 - 삼국시대 분묘유적을 중심으로』에서는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되는 동물 유존체 검토를 통해 당시 지배층 무덤이 조성될 때 동물희생의례가 이루어진 방식을 구체적으로 추론하였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유적 내 유기물 수혈 검토』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 유적 발굴에서 발견된 소와 말뼈가 매우 정연하게

매장된 특이한 사례로 발굴 현장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보고이다. 『고고학 및 유전학적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사육 말의 기원과 확산』은 최근 동물고고학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말의 기원과 그 확산과 관련된 문제를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풀어간 것이다. 인도 유적에서 발굴된 순동 시대 양과 염소 뼈를 대상으로 한 『Applications of bone histology in tracking exploitation markers: A case study from the site Inamgaon, Maharashtra』에서는 동물 뼈의 조직학적 구조가 역사상 가축화 과정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Archaeofaunal Remains And Stone Implements Found in Myin Ma Hti Cave no.2 (MMH2) Located in Aung Pan Township, Shan State of Myanmar』 논문은 신석기 시대 미얀마 동굴유적(Myin Ma Hti Cave No. 2)에서 발굴된 돼지, 악어, 개 등 다양한 동물 뼈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물고고학은 서구에서는 그 역사가 오래된 분야이지만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전문적 연구자가 많지 않아 우리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집호에서 볼 수 있듯이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옛 동물들의 유해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자연환경과 인류 생활양식, 인간과 동물 상호 간 관계에 대한 풍부한 학술적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때문에 동물고고학 연구는 향후, 우리 생물인류학 분야와 협력하여 고고학 현장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문제를 풀고자 함께 노력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 분야 발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면서 생물인류학자 여러분께 본 특집호를 권한다.